

군 장병 평일 외출 지원 '호응'

순창군, 매주 수요일마다 현역 장병 40여명 읍으로... 지역경제 새 대안 떠올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추진된 병사들의 부대밖 외출제도가 순창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대밖 외출제도는 사회와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작전 훈련준비를 위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순창군도 장병들의 부대밖 외출제도에 교통편을 제공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날은 황숙주 순창군수도 군부대를 찾아 부대밖을 나서는 장병들을 환영했다.

처음 평일 외출에 나선 김도 상병(20)은 "군 생활을 하면서 평일에 나올 수 있을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며 "막상 부대를 나와 시가지에 돌아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즐겁다"고 말했다.

평일 군인들이 단체로 읍시가지



돌아다니는 새로운 광경에 주민들도 지역경제에 활력이 든다며 반기는 눈치다.

읍소재지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20대 젊은 장병들이 비수기인 요즘에 가게를 찾아주는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면서 "관련 제도를 확대운영해 지역경제 살

리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군 한정만 안전총괄계장은 "남부간 군청버스를 지원해 장병들의 외출제도가 편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추경예산을 반영해 택시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마을활동가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남원시가 '사람이 중심인 남원, 시민이 행복한 남원'이라는 비전 아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힘차게 추진하며, 올해 1%의 성장과 99%의 희망이라는 슬로건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내실을 다지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이 2사업은 주민들이 제안한 공모사업을 심사, 선정해 꿈꾸는 마을학교를 수료한 시민들에게 가산점을 주어 공공 의식을 바탕으로 탄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공동체 활동가로 전문역량을 갖춘 공동체지원센터(센터장 이규용) 직원들은 중간지원조직으로써 남원시장 기획실, 총무과, 경제과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 협력해 행정과 시민의 다리역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남원은 그동안 공동체지원센터에서 공동체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꿈꾸는 마을학교와 활동가 양성 교육인 마을활동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했다.

한편, 이원주 시장은 지난해 남원시 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 1년 동안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펼쳤으며, 이 같은 노력은 지난해 남원시 성인 인구 6만 9,000여명의 1%인 시민 700여명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희귀질환 133종 894개에서 951개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확대는 지침 개정에 따라 대상 범위가 기존의 희귀질환 133종(894개)에서 희귀질환 927개, 법·고시 경과

조치 대상 질환 24개 총 951개로 변경되었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완화, 장애등급제 폐지(7월)에 따른 간병비 지급 기준 변경(예정) 등이 있다. 기준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재산기준 만족자이며 남원시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상자로 등록되면 요양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 받게 된다.

또한 사업지침에 따라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남원시보건소(620-7926)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과수 농기계 지원으로효과 '특특'

남원시가 FTA등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와 소비자 기호변화 등에 따라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 및 노동력 절감을 통한 과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과수 농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원농업은 과거 수작업과 재래식 농기계 장비에 의존했던 과수농업을 현재는 영농전반에 걸쳐 다양한 농기계를 통해 노동력이 절감되어 규모화, 전업화가 가속화되며 농가 소득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 과수 전용 농기계의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

세이다. 이강조 원예산업과장은 "과수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매년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명품 과실생산 및 수출물량 안정적 확보 도모는 물론, 농촌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생치면 출신인 김상렬 회장이 훈몽재 어암관 건립부지를 기부했다.

훈몽재 어암관 건립 '탄력'

김상렬 회장, 순창군에 어암관 건립부지 기부

순창 생치면 출신인 김상렬 회장(84, 서울 거주)이 훈몽재 어암관(가칭) 건립부지의 기부사를 밝혀 관련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 회장은 조선시대 문묘에 배향된 동방 18현 중 유일한 호남 출신 유학자인 하서 김인후 선생 14대손으로, 훈몽재에 깊은 애정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일 김 회장은 훈몽재를 방문해 어암관 건립부지 6,600㎡(2,000평)에 대해 건립사업 추진에 보탬이 되도록 기부채납 신청서를 황숙주 순창군수에게 전달했다. 이날 훈몽재를 방문한 황 군수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어암관 건립을 통해 하서 선생의 유풍을 계승하고, 훈몽재를 국제

적인 유학사상의 산실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2009년에 훈몽재 중건이 추진될 당시에도 작은 도로로 순창군에 부지를 희사했었고, 이후로도 비록 몸은 멀리 떠나 있지만 훈몽재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며 "이번 어암관 건립 추진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부채납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훈몽재는 중국 유학생들도 김충호 선생의 강의를 듣기 위해 방문하는 등 그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군은 어암관 건립으로 훈몽재 외연을 확장해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유학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영농철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

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박재근)는 본격적인 영농기에 앞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농업용수 확보 및 시설물 점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남원지사 관내 저수지, 율 현재 저수율이 68%로써 평년 수준을 밑돌고 있으며, 기상청은 봄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업용수 공급대책 사전검토 및 봄 가뭄대비 선제적 용수공급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농업용수 부족 예상지역에 대한 용수확보 방안을 강구중인 것이다.

특히, 남원지사 주 수원공인 동화댐 저수율이 현재 66.2%로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어 농업용수 절약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으로 관내 저수시설, 관정, 양수장 등 용수공급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가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누수 취약부분 집중관리 및 집단못자리 추진, 논물 걸러대기 등 물 절약에 농업인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소소심플러스 바로알기 홍보

남원소방서(서장 조영주)는 국민 스스로 생활안전을 습관화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자율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소소심플러스(+) 바로알기 홍보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소소심플러스는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과 함께 완강기 사용법을 일컫는 말로, 기존 소소심에서 완강기 사용법을 추가하여 플러스(+)를 붙인 것으로, 완강기는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몸에 밧줄을 매고 높은 층에서 땅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기구로,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체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시, 방범CCTV 관리 간담회

임실경찰서(서장 박주현)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관내 방범용 CCTV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임실군과 유지보수업체 간 합동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종 사건·사고 등 범죄예방 및 각종 범죄의 조기해결을 위해 마을에 설치된 방범 CCTV에 대해 민·관·경 합동으로 주기적 점검과 신속한 보수, 관련기관·업체 간 핫라인 구축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임실경찰서는 임실을 270여개마을 300여대의 CCTV 점검을 시작으로 임실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신평면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에 들어갔다

신평면 주민자치프로그램 본격 운영

임실군 신평면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1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게이트볼, 족구, 라틴댄스 과목을 선정했다. 마을 경로당의 어르신들 직접 찾아가

건강수준 및 삶의 질을 향상 도모하기로 했다. 이상태 신평면장은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취미생활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